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0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3월 30일 수요일 (음 2월 22일) 제 152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4.13 총선 D-14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9일 오전 부산 동구 더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울산 후보자 연석회의에 참석, 후보자들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야 도당, 총선 공약 발표

새누리 "100년 전북발전" 더민주 "한국 속 전북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9일 4·13 국회의원 선거 공약을 발표하고 "호남속의 전북 아닌 대한민국 속의 전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들은 불평등 해소와 양극화를 완화하고, 호남속의 전북이 아닌 대한민국속의 전북, 지속가능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춘진 후보(김제부안)는 "박근혜 정부 집권 3년동안 민생파탄과 농어업인 삶은 파멸해왔다. 이번 전북선거는 2017년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야 한다"면서 "호남의 변두리가 아닌 대한민국 속의 전북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독립을 선언하면서 농업과 전통문화라는 내발적 자원을 활용한 가치 확대를 통해 살고 싶은 전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정책공약은 ▲500조 금융도시 전북 ▲21세기 신소재산업 중심 전북 ▲행복한 농업 한반도 부위 전북 ▲문화 실�크로드 ▲SOC 조기구축으로 새만금 3.0시대 실현 ▲사람 중심 복지 전북 등이다.
새누리당 전북도당도 이날 도의회

에서 20대 총선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전북발전 100년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새만금과 함께 발돋움하는 신산업 도시'를 목표로 내걸었다.

전희재 후보(전주갑)는 "산업화에 뒤떨어진 전북을 첨단 미래 산업으로 맞바꿈하고, 새만금과 기금운용본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실리적 해결을 통해 전북발전의 도약 발판을 마련하겠다"면서 "특정정당의 독주로 전북의 잃어버린 30년을 되돌리겠다"고 했다.

이어 "전북의 미래를 위해, 자녀의 희망을 위해 전략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야 한다"라며 "새누리당이 전북발전, 희망 100년을 책임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총선 정책 공약으로 ▲새만금 한·중경제협력 적극 지원 ▲전북경제의 산실, 탄소산업 집중 육성 ▲500조원 기금운용 전북금융타운 조성 ▲농도 전북 위한 농생명식품산업 경쟁력 극대화 ▲국립보훈요양원 건립 등을 내세웠다. /특별취재반

롤리코스터 여론조사 유권자·후보자 '혼란'

유선전화방식 활용으로 실시 기관에 따라 결과 큰 차이
도선관위, 특정후보 지지유도 집단전화 착신 행위 제동

"여론조사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반전화를 꼭 받아주고 일반전화와 휴대폰을 연결하는 착신전화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급한 듯 이런 내용의 문자가 이번 총선 일부 후보자들로부터 유권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도내 주요 격전지 상황을 위해 각종 언론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도드라지지 않자 이 같은 문자를 통해 자신의 지지자들을 독려하기 위한 교육자책이다.
불과 2~3일 사이에 10~20%를 넘는 지지도 수직 강하 여론조사 결과에 후보자는 물론 각 정당과 유권자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전북도민일보와 전주MBC, JTV전주방송 등은 전주갑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에서 더민주 김윤덕 후보는 41.9%의 지지율을 얻어 29.7%를 기록한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에게 12.2%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도

했다.
이번 조사는 이들 언론기관이 (주)코리안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선거구별로 각각 500명(총 1,500명·신뢰수준 95%, 신뢰수준 ± 4.4% 포인트, 응답률 23.9%)을 대상으로 전주갑·을·병 등 전주지역 3개 선거구에 대한 총선 후보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 정당지지도, 총선 쟁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같은 날 전북매일신문은 전주갑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가 35.0%, 32.9%를 얻은 더민주 김윤덕 후보를 2.1%p 앞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당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윤덕 후보의 경우 9%포인트, 김광수 후보는 5.3%포인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순위가 바뀌고 있다.

전북매일신문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4~26일까지 전주갑을병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

으며 전주시 갑의 경우 유효표본수 778명으로 응답률 7.1%, 을은 유효표본수 77명, 응답률 6.8%, 병은 유효표본수 700명, 응답률 4.8%이고 3개 선거구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5%p다.

표본추출은 인구비례 무작위추출에 의한 유선전화 및 RDD 및 전주시 거주 모바일 터미니 플랫폼 회원조사, 조사방법은 유선전화 ARS 전화조사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뤄졌으며 2016년 2월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국가인구통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했다.

이 같은 차이는 여론조사방법 때문으로 관측된다.
당내 경선방식인 안심번호가 아닌 일반 유선전화방식을 활용했기 때문에 전화착신을 통한 여론외곽 현상이 일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유권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더민주당은 "여론조사가 조직이나 지지자들을 동원해 착신 전환 등을 통해 무조건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

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ARS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사례가 많아, 한정된 샘플링에 가중치를 부여해 조사결과를 도출하는 현행 조사방식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전화착신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집단 전화 착신이 이뤄지면 문제가 된다.

자신 집 전화에 한정되지 않고 주변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의 전화까지 한 대에 착신해서 들고 다니면 한 사람이 이들 여론조사들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결국 전북선관위가 이 같은 행위들에 제동을 걸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월1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착신전환 'ARS조사 외곽'은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신설됐다"면서 "다수 전화 개설 후 착신전환 해 거짓·중복 응답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특별취재반

영남 '다여' 호남 '다야'... 흔들리는 정당 텃밭

(多興) (多野)
여권의 텃밭인 영남과 야권의 핵심 호남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영남은 유승민 등 비박계 낙천파동으로 표심이 갈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었던 호남은 국민의당 창당으로 표심이 갈려 각각 다여(多興), 다야(多野) 구도속에서 힘겨운 승부를 벌이게 됐다.

영호남은 여당과 야당에서 공천을 받기만 하면 통과여예 수준의 본선이 거쳐 배지를 달았던 지역이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본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영남에서는 비박계 낙천파동 끝에 새누리당을 탈당한 여권 성향 무소속 현역 의원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곳곳에서 혼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유승민(동을), 주호영(수성), 류성길(동갑), 권은희(북갑) 의원이 울산에서는 강길부(울주) 의원이 경북에서는 김태환(구미) 의원이, 경남에서는 조해진(밀양 의령합안창녕) 의원이 각각 무소속으로 나서 새누리당 후보와

맞붙고 있다.
호남에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거세게 맞붙고 있다.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등 후보를 대패하는 정치인들이 이번에는 대부분 국민의당 깃발로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민주로서는 텃밭을 얼마나 사수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은 광주에서만 천정배(서을), 박주선(동남을), 장병원(동남갑), 김동철(광산갑), 권은희(광산을) 의원 등 5명의 현역의원을 출전시킨 상태다.

전북에서는 장세환(전주을) 유성엽(정읍고창) 김관영(군산) 의원 등과 정동영(전주병) 전 의원, 조배숙(익산을) 의원 등이 도전한다. 전남에서도 박지원(목포), 주승용(여수), 황주홍(고흥보성장흥장진) 의원과 박준영(영암무안신안) 전 전남지사 등이 나섰다.

더민주의 양향재(광주 서을) 후보 등 영입인사들을 전면내 내세워 경쟁력있는 내걸고 비박파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만만찮은 승부가 될 전망이다. /이성주 기자